

패널토의 - YWCA 에 바란다

"여성운동체로서의 YWCA "

여성운동의 방향을 인식하는데 → 36세로

87.11 - 1994년 12월 31일 - Y대 앞

박영숙 국회의원

1951년부터 1987년까지 36년동안 YWCA 와 함께 하면서 YWCA 에서
잡빠가 굶은 사람이 한발 밖에 선 입장에서 "YWCA 에게 바란다"라는
말을 해야 하니 선뜻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4년동안
YWCA 에 대해서는 겨우 술간지를 통해서 알 뿐이어서 과연 적절한
제언을 할수 있을 것인가 염려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기에 할
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주요한 과제의 중요성
이것이 바로 핵심
이것이 바로 핵심
이것이 바로 핵심

36세로

YWCA 는 기독교운동, 국제적운동, 회원운동, 그리고 여성운동
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회원의
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은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것에 비해 여성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은 어떤 가?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여성운동이란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이 자신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 이런 관점으로
미루어 볼때 여성운동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분명한가 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요한 과제의 중요성 (주요한 과제의 중요성)
이것이 바로 핵심
이것이 바로 핵심

그동안 YWCA 운동의 방향과 프로그램은 개인의 지, 덕, 체의
균형된 발전을 추구해 왔다. 그것은 하나의 인간론으로서의
여성문제는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도입의 시대가 아니며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시대이다.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모순과 갈등을 개인이 해결할 수 없으며
집단적인 힘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은 비참하게 당하고 있다. 성차별과 갖가지 횡포는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운동의 필요성이 있으며 여성운동으로서의 YWCA는 여기에서 할 일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YWCA가 여성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또는 사회사업단체의 성격을 강하게 유지할 때 회원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며 여성운동체로서의 YWCA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 이유는 여성들의 교육정도가 높아지고 사회의식이 높아진다고 해도 우리 사회구조가 여성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평등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현대적 감각의 생활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행복이란 모래성을 쌓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YWCA 운동은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문제를 좀더 사회적 관계속에서 파악하고 그 모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운동체로서의 집단성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YWCA의 운동이 넓이나 조직을 여성의 삶의 현장에 따라 계층별, 부문별로 체계화 시키고 그 모든 노력이 여성차별의 극복이라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

현재 YWCA는 여성운동으로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조직적 기반을 갖고 있다. 일부에서는 YWCA가 지나치게 중산층 주부중심의 조직체라는 말을 하는 이도 있지만 나 개인의 생각으로는 모든 조직이 여러계층의 여성문제를 다 끌어 안고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YWCA가 중산층 주부회원이 조직의 근간이라면 주부들의 생활영역에서 확고한 여성운동적 시각을 갖고 나아가도록 교육하고 사회의식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된다.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어 개인주의나 보수주의에 젖어 있는 주부들을 사회적 참여자로서 조직화 해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타여성운동체의 운동양식은 YWCA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일부 주부중심의 운동은 성폭력 특별법 제정운동, 타아법입법 운동, 반핵평화운동, 민족통일운동, 환경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등등 전업주부들이 겪는 생활상의 문제들을 주부들이 주체적으로 풀어가려는 방향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대개 그러한 조직들의 목표는 사회적 논의에의 참여가 차단
되어 타정치화 되어 자신들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처리하려는

여성들의 의식을 끌어 올려 결국 여성문제를 사회적 모순속에서
파생된 것임을 깨닫게 하고 그 해결과정에서 여성 스스로의 자기
존엄성과 권리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에서 보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YWCA 운동에 새로운 전망을
던져준다고 생각한다. YWCA 운동의 오랜 역사속에서 YWCA는 많은
민주적 인재를 키워 냈으며 그들은 지역사회 내의 주민자치제의
주역이 될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YWCA가
지금까지 취해오고 있는 정치에 대한 시각과 입장을 과연 수정전환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는 우리 여성의 불평등을 해소
하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의 조건을 보다 질 높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여성운동 차원으로로서의 정치참여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역마다 막강한 조직과 사회정의의 목적을 갖고 있는
YWCA가 여성운동으로서의 정치참여를 하게 될때 보다 많은 일을
해 낼수 있으며 우리 사회는 보다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YWCA는 우리나라의 어느 여성단체 보다 더 긴 역사인 70주년을
맞이한 운동체이며 전국 49개 도시의 지방YWCA 조직, 그리고
3백만 명의 회원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체들을 이끌어 가는
지도력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그것은 YWCA가
의지만 있다면 못해 낼일이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회원들은 물론 그 밖의 무수한 여성운동체들의 힘을 묶어
낼수도 있다. 그리고 그 묶어진 힘으로 여성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에
기여 할수도 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YWCA는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회원의 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에 치중한 나머지 여성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점이다.

YWCA 가 여성의 힘을 집결하고 여성의 주권회복을 해내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성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의 선구자적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성운동은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문제를 자각하도록 하며 주체적으로 모순을 해결하는 현장으로 나오게 하고 요구를 관철하도록 집단성을 발휘하게 도와야 한다.

그러나 YWCA 의 운동방식은 여성대중을 조직화하여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보다는 일회적인 캠페인 형식의 방법을 선호한것 처럼 보인다. 이것은 여성대중을 운동의 주체로 인식한것이 아니라 교양과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예를들자면 지난 13대 국회에서 통과된 여성관련 법안중 가족법 개정은 해당되지 않으나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운동과 택아법 개정운동등의 과정에서 YWCA 는 YWCA 자체내에서 세미나나 토론회 중심의 운동방식을 채택하고 대국회 차원이나 대정당 차원 또는 대사회 차원에서의 YWCA 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압력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법개정 추진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평화의 시위를 할때에도 YWCA 는 그들과 연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YWCA 가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 타단체와의 연대를 소홀히 한 결과로서 여성운동의 과제수행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또한 아쉬운 점은 여성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의 이념과 방향의 모호함이다. 지난 70년대로 부터 80년대에 이르는 기나긴 민주화 운동 과정을 경험하면서 나는 YWCA 에 대한 애정이 깊은 만큼 그 당시 YWCA 가 보여준 탈정치화된 모습에서 YWCA 운동의 한계와 회의를 가졌던 적이 있다. 더더욱 가슴아팠던 것은 국가권력에 의해 한 여대생이 성고문을 당했던 분노와 치욕의 사건을 보면서도 YWCA 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때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구조적 모순에서 파생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시달리다 권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던 여성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위장폐업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을때에도 YWCA 는 그들을 위해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김인숙 (13대)
강현숙
김보은

강현숙은
대통령기록보유권
제로 내려

YWCA 가 여성직업 개발교육과 시범탁아소 운영 등의 고무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서 평생, 평등, 노동권을 획득하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적 운동을 통한 제도개선에도 YWCA 는 협력해야 한다.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흐를 때는 수도꼭지를 고쳐야지 아무리 그릇으로 물을 퍼내다고 해도 물을 없앨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여성단체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사회복지적인 서비스를 한다해도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여성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의 역할은 구조적인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성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은 여성의 힘을 정치세력화 해서 여성의 주권을 찾는 일이다. 지난 광역의회에 출마했던 한 여성후보의 말이 생각난다. 10여년간 여성운동을 해 왔지만 선거과정을 통해본 일반여성 대중의 정치참여의 열망과 진지함을 보고 그동안의 여성운동 과정을 반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문제는 대중여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 지도력 내부의 비정치성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억압하는 비민주적 가부장적 정치권력에의 도전(1024)을 게을리 해왔던 것이다. 전세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볼때 기득권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결국 우리 여성들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커질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운동의 조직력을 키워 제반 정치조직들의 비민주적 여성관을 우리 스스로 깨뜨려야 한다고 본다. 이 과제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해 내는 비결을 얻어보자.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이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재판관이요 보면 양심도 없고 뇌물을 밝히며 가장 잔인한 인간의 상징이라고 보인다.

1024 → 1424
3.5% → 1%
045610456242424
가죽(107)
3652242424
045610456242424
0.2%

그런데 과부라고 하면 삶의 보장이 없는 가장 약한 인간을 말한다. 과부는 자기의 운명을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재판관의 힘을 빌리려 한다. 그러나 재판관은 과부에게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없고 보니 그의 힘을 빌려주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그 과부는 생명을 내 건 투쟁으로서 잃어버린 자기의 권리를 찾아 달라고 재판관에게 조른다. 과부의 요구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재판관은 귀찮아서 그의 요구를 마침내 들어준다.

예컨대
재판관과 과부의
대결은 어떻게
관(16)이 승리

여성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은 이 과부처럼 자기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던질 만큼 집요해야 한다. 그래서 절벽과도 같은 가부장제를 무너뜨리고 YWCA가 추구하고 있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민주사회가 아니겠는가?